

공군, 우리협회 전자전/모의훈련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97 전자전/모의훈련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가 공군주최 우리협회 주관으로 지난 14,15일 양일간 계룡대에서 개최되었다.

14일에 개최된 개회식에서는 이억수 공군참모차장과 우리협회 박병구 부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억수 참모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대전에 있어서 항공력의 우열을 가름하게 될 기술과 모의훈련 체계의 중차대함을 강조하고, 세미나 및 전시회 준비에 애쓴 민·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우리협회장은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자전과 모의훈련체계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연관기관과 업체에서는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정부 관련 부처와 군은 관련기술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해외업체들과 효과적인 기술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13회째 운영되는 전자전 세미나와 5회를 맞고 있는 모의훈련 체계 세미나를 병행 진행함으로써 유사 무기체계인 두 분야의 필요성, 발전추세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발전과 이해를 도모했다. 또한 국내 각 대학 및 연구소에서 전자전 및 모의훈련체계와 관련된 교수, 연구원과 교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외 선진업체의 장비전시를 통해 국내 산·학·연·군 연구진들의 국외 선진기술 응용현황 습득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국내 전자전 및 모의훈련체계 관련 연구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도 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방극생 박사, 미 AIL System사의 Edward A. McNally박사를 비롯, 국내 20편 국외 13편 등 총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향후 전자전과 모의훈련체계에 대한 공군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고, 실제적인 기술 응용 분야가 발표됨으로써 기술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시장에서는 록히드 마틴, 노드롭 등 해외 6개국 14개 업체를 포함한 17개사가 내놓은 첨단 장비 24개점이 전시가 되었다. 전자전 및 모의훈련체계에 관한 기술이론 및 실제 응용기술 소개와 첨단장비 전시를 통해 미래 전쟁환경에 부응하고 동 분야의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전자전에서는 교란장치, 레이더 경보장치 등을 선보여 많은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모의훈련분야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비행 시뮬레이터 등이 소개되어 더욱 발전된 실제적 기술 응용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양일간 행사에 약 1200여명이 세미나 및 전시회에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항공대, 항공우주부품개발연구센터 개소식 가져

경기도와 한국항공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항공우주부품개발 연구센터(소장 김두만 교수)가 10월2일 항공대학교 총장, 우리협회 부회장 등 정부 산·학·연 항공우주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이미 동 센터는 지난 6월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정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지역협력 연구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동 센터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KCDC) 일환으로 지원되는 정책사업으로 대학으로 하여금 육성이 시급한 산업분야연구를 수행토록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을 참여업체에 이전시키는 등 산업기술 고도화를 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항공우주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제시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신규진출업체에 대해서는 대학의 연구요원과 기업체간 협의에 의한 과제를 설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경기도청과 14개 산업체, 3개학회, 4개국 해외협력기관이 연계된 협력구도를 갖추고 있는 동 센터는 첨단항공우주부품 개발단지를 조성해 기술 집중과 협력을 증진하는 등 선진항공우주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항공우주부품개발 단지조성과 관련 경기북부 12개 시·군 공업담당과의 협의체구성을 통한 유기적협조를 해당 기초단체에 희망하는 한편 첨단단지조성에 공장부지선정 등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동 센터는 시스템 해석실, 항공열추진,

항공기구조 및 재료, 재료물성, 항공우주제어, 항공유체, 항공통신실험실과 시험평가실 등 전문분야별 실험실과 지원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연구를 맡고있는 연구팀과 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연구개발성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동 센터의 주요연구 프로그램에는 항공 전자 보기 부품, 항공우주 기계 module 부품, 항공우주용 소재 및 단품 등 3개분야 15개의 과제와 특별프로그램으로 자동항행시스템구축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등 4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진으로는 항공대학교의 교수진과 참여 업체들의 연구원들로 이루어지나, 프로그램이 다양화 됨에 따라 타대학교의 교수 및 연구소와의 협동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연구활동이외에도 산업체 애로기술지원, 첨단기술 이전 등의 산학협력 사업, 대학원생 센터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인력양성사업, 항공우주관련 심포지엄 및 Workshop 개최, 학술회의 개최 등의 학술활동사업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항공우주개발연구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KTX-2사업 계약 체결

삼성항공과 국방은 2005년까지 국내기술로 한국형 최신에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24일 고등훈련기개발사업(KTX-2)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동사는 세계 최대 군수항공업체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으로 엔진·전자·제어장치 및 항공기체계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항공기제작일정과 관련, 99년 2월까지 기체모형을 확정하고 2000년 초도비행을 거쳐 2005년까지 모든 개발일정을 완료해 양산체제를 갖춘다음 2010년까지는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고등훈련기는 시속 마하 1.4정도의 초음속제트기로 경공격기능을 갖추는 한편 기동성과 안정성 등도 모두 초음속 전투기급으로 설계된다고 삼성항공측은 밝혔다.

개발비용은 모두 1조7천억원이며 국내외의 35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 삼성항공은 항공기체계와 훈련체계개발 등을 맡고, 록히드사가 항공전자 및 비행제어개발, 대우 등 협력업체가 전후방 동체 등의 개발을 맡는다.

또한 지난 27일 삼성항공 사천공장에서 각계 관련인사 1,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KTX-2 체계개발착수 발진대회를 갖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결의를 가졌다.

유럽, 항공우주산업 성장세 지난해 12% 성장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오던 유럽의 항공우주산업이 지난해 96년에는 12%의 성장을 기록, 올해에도 계속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항공우주산업협회(AECMA)은 지난해 유럽 항공우주산업이 498억달러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5년 총 매출액은 446억 달러이다. AECMA는 유럽 통합의 노력으로 상용기부분의 판매와 생산이 크게 호전된 반면, 노동력은 지난 1981년 최고를 기록했던 574,580명에 비해 1996년 343,39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항공기 관련산업으로 전체 매출의 80%이상을 점하고 있다. 미사일과 우주관련산업은 각각 6.5%, 10.5%이다. 항공기를 최종 조립하고 있는 업체가 엔진 및 장

비를 포함 약 50%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형여객기가 전체 항공기부문 매출의 35.6%, 군항공기가 34.6%, 헬기가 14.2%, 지역간항공기가 11.6% 그리고 비즈니스 제트기가 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AECMA는 올해 상반기 분석을 통해 1997년도 지난해 대비 10% 이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어버스(Airbus Industrie)의 경우 올 8월말에 이미 지난해 전체 수주량을 달성했다. 헬기의 경우 15%이상의 성장을 전망했으나 지역간 항공기 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전망했다. 군수산업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AECMA는 내다봤다. 이와함께 유럽정부의 항공우주산업 R&D투자도 미국보다는 적지만 중복된 산업부분의 정리와 EU수준의 대단위 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지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켓쉐어측면에서 보면 유럽내 미국 항공기 점유율은 40%, 미국내 유럽점유율은 15%로 낮은 편이나 미국이 제3국 수출면에서 미국매출의 1/3을 차지한 반면, 유럽은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간 상호항공안전협정(BASA)을 위한 실행협정(MOA) 체결

정부는 지난 10월14일 미연방항공청(FAA)과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추진을 위한 실행협정(MO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항공기 및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수준 및 설계, 생산, 운용, 소음, 환경에 따른 항공기 인증 등에 관한 기술 협력 및 상호인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협정의 실무에 있어서는 한·미간 항공안전에 관한 동등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훈련, 미국 전문가와 공동 인증업무 수행, 국산 항공기 및 부품의 인증을 위한 병행과제(Shadow Project) 수행 등이 포함될 것이며, 금년 11월부터 미연방항공청의

정규 인증기술과정이 국내에서 개설될 것이다.

상호항공안전협정은 항공기 및 부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증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술협정으로서 항공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협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체에서 개발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항공기용 타이어, 항공 전자부품 등 높은 기술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표로 직접 수출되어 사용되지 못한 이유는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상호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항공선진국 29개국이며(현재 러시아 등 14개국이 이 협정을 진행중에 있음), 우리나라도 협상진행국에 포함되어있다. 본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상호 인증제도의 평가 및 기술력의 평가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부품 수입승인 면제 수출입별도공고 개정고시

앞으로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승인이 면제된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출입별도공고를 지난 2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통산부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의 수입 규제완화 건의를 수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한국항공·서울항공·시티항공 등 정기 항공운송사업자·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와 중앙항업·대우중공업·범아엔지니어링·익산 등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부분품을 자

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승인을 면제키로 했다.

수출입별도공고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2조(수입요령) 항공기 및 동 부분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 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수입 할 수 있다.	제4-2조(수입요령) ----- ----- ----- ----- -----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포함)가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1. -4. (생략)	1 -4. (현행과 같음)